

‘가나다 전화’ 질의 응답

질문 다음 고유 명사의 단위별 띄어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예술 종합 학교, 한국 교육 대학교,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 통신 공사, 한국 전력 공사, 한국 가스 공사, 한국 공제 조합, 한국 정보 센터, 한국 무역 종합 전시장,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학무 국, 서울시 의회, 서울 시립 교향악단, 세종 대왕 기념관.

(김대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답변 귀하의 문의에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49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3항)

우선 예들이 특정 기관의 명칭이거나 상호라는 전제하에 원칙과 허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띄어 쓸 수 있습니다.

원 칙

- (1) 한국 예술 종합 학교
- (2) 한국 교육 대학교
- (3) 한국 국립 박물관
- (4) 한국 통신 공사
- (5) 한국 전력 공사
- (6) 한국 가스 공사
- (7) 한국 공제 조합

허 용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교육대학교
- 한국국립박물관
- 한국통신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공제조합

- | | |
|------------------|------------|
| (8) 한국 정보 센터 | 한국정보센터 |
| (9) 한국 무역 종합 전시장 | 한국무역종합전시장 |
| (10) 서울시 교육 위원회 | 서울시교육위원회 |
| (11) 서울시 교육청 학무국 | 서울시교육청 학무국 |
| (12) 서울시 의회 | 서울시의회 |
| (13) 서울 시립 교향악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
| (14) 세종 대왕 기념관 | 세종대왕기념관 |

위 (3)의 ‘한국 국립 박물관’을 ‘한국국립박물관’과 같이 붙여 쓰는 데에는 그러한 이름의 기관(또는 부서)이 존재하며, 이를 고유 명사로 가리키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전주 박물관’ 등은 있어도, ‘한국 국립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은 없는 듯합니다. ‘한국 국립 박물관’을 ‘한국에 있는 국립의 박물관’ 모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한국국립박물관’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한국 국립박물관’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2)의 ‘한국 교육 대학교’도 같은 예에 속합니다.

(10)-(12)의 ‘시(市)’는 하나의 행정 구역이나 지방 자치 단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띄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시 단위, 시 당국) 그러나 지명 뒤에서 행정 구역을 나타낼 경우에는 붙여 씁니다. ‘도(道), 군(郡), 동(洞)’이나 ‘특별시, 직할시’ 등도 같습니다. (예 :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충청북도, 경주시, 화성군, 성북구, 삼선동) 이에 따라 (10)-(12)는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로 적습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그러나 (10), (11)이 특정 기구나 특정 기관이라기보다 교육 행정 기구라는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띄어쓰기는 달라집니다. 즉 (10)이 ‘도 교육 위원회’ 등과 대비되는 ‘시 교육 위원회’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 교육 위원회’로 적어야 하고, (11)이 ‘군 교육청’ 등과 대비되는 ‘시 교육청’이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 교육청’으로 적어야 합니다. (12)도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시(市)의 의결 기관으로 ‘국회’나 ‘도 의회’와 대비되는 ‘시 의회’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 의회’로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유 명사로 쓴 것이 아니므로 ‘허용’에서와 같이 붙여 쓸 수 없습니다. (13)의 경우는 ‘시립’이 ‘국립, 도립, 군립’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쓰이므로 ‘서울 시립 교향악단’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고유 명사로 쓸 경우에는 ‘허용’에서와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예들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정 기관 등을 고유 명사로 지칭하여 쓸 경우에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허용’에서처럼 단어별로 띄어 쓸 수도 있으나,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어구로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합니다.

(김희진)

물음 '공안(公安)'과 '치안(治安)'이란 용어를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합니까? 그리고 '치안'이란 용어에 '질서' 또는 '유지'란 용어를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치안 유지' 또는 '치안 질서 유지'라고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복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답 '공안(公安)'과 '치안(治安)'의 사전적인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안: (1) 공공(公共)의 편안.

(2)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그것을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도모하는 것.

예: 공안 보장, 공안 사범, 공안 통치, 공안 정국 등.

나. 치안: (1)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것. 또는 나라가 편안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

(2) 국가 사회에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하는 것.

예: 치안 공백, 치안력 무시, 치안 부재, 치안 상태, 치안 유지, 치안 통제, 치안 행위, 치안 행정, 치안 확보 등.

위의 사전적 용법을 종합하면, '공안'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공권력에 의한, 따라서 강제에 의한 결과란 뜻이 내포되어 있고, '치안'에는 사회 제도와 통치에 의한 결과란 뜻이 내포된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나.의 예와 같이 '치안 유지'란 용어는 많이 쓰이고 있으나 '치안 질서 유지'는 쓰이지 않습니다. '치안'에는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과 '질서' 두 말의 결합이 동어 반복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김희진)

물음 '데'가 들어가 있는 '-L데'는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붙여 써야 하고 어떤 경우에 띄어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김현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데'가 의존 명사인지 아니면 '-L+데'로 분석되는 어

미의 일부인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데’가 의존 명사라면 띄어 써야 하고 어미의 일부라면 붙여 써야 합니다.

“네가 무엇인데 그런 소릴 하니?”의 ‘데’는 서술격 조사 ‘이다’에 어미 ‘ㄴ데’가 연결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그를 설득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는 ‘일이나 것’의 뜻을 가지는 의존 명사 ‘데’가 연결된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어미로서의 ‘ㄴ데’는 서술격 조사나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에만 붙습니다. 앞의 “네가 무엇인데 그런 소릴 하니”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에 어미 ‘ㄴ데’가 붙은 것이고 “키는 큰데 힘은 없다”는 형용사 어간에 어미 ‘ㄴ데’가 붙은 것입니다. 위의 ‘무엇인데’, ‘큰데’의 ‘ㄴ데’는 모두 다음 말을 끌어 내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먼저 베풀 때 쓰는 연결 어미인데 이밖에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공기가 몹시 찬데”처럼 남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스스로 감탄하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종결 어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문제인데’는 ‘문젠데’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서술격 조사의 어간인 ‘이’가 생략된 것입니다.

의존 명사 ‘데’는 보통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와서 ‘곳이나 장소’를 이르지만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처럼 ‘경우나 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노래 부르는 데도 소질이 있다”의 경우처럼 ‘일이나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언 어간 중 동사 어간 다음의 ‘ㄴ데’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데’의 결합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형용사 어간 다음의 ‘ㄴ데’ 중에서도 ‘데’가 확실히 ‘곳이나 장소, 경우나 처지, 일이나 것’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ㄴ’과 ‘데’를 띄어 써야 합니다. (박용찬)

☞ ‘사귀어’의 준말은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김현덕,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 모음과 모음이 어울렸을 때의 준말의 표기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35항에서부터 제38항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5항에서는 “모음 ‘ㄱ, ㅋ’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나/너, 갔/갔’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6항에서는 “‘ㅣ’ 뒤에 ‘-어’가 와서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7항에서는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각각 ‘ㅓ, ㅕ, ㅖ, ㅗ, ㅛ’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8

항에서는 “‘나, 그, 너, 이’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ㄱ’ 뒤에 ‘-어’가 와서 이루어지는 준말로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사귀어’의 준말로 ‘사겨’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는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표준어는 줄지 않은 ‘사귀어’뿐이므로 준말의 표기는 없습니다. (박용찬)

문음 ‘파울 볼’이 맞습니까? ‘화울 볼’이 맞습니까? ‘화울 볼’이 영어의 foul ball의 발음과 더 가깝지 않을까요?

(장원창, 울산시 학생동)

답 영어의 foul ball에서 차용된 외래어의 바른 표기는 ‘파울 볼’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들 ‘화울 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파울 볼’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단어뿐 아니라 원어의 발음에 [f]가 포함된 단어는 예외 없이 그 [f]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ㅍ/프’로 옮겨져야 합니다. 즉 figure skating, fiction, film, filter 등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피겨 스케이팅, 픽션, 필름, 필터’가 맞으며 ‘휘겨 스케이팅, 획션, 휠름, 휠터’와 같이 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원어에서 [f] 음이 있는 단어가 우리 말에 외래어로 들어올 때 ‘파울’이나 ‘화울’이냐에서와 같이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국어에 /f/라는 음소(phoneme)가 없고 또한 변이음(allophone)으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어에 /f/ 음소가 있다면 그 음소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을텐데 국어에는 /f/ 음소가 없기 때문에 /f/에 대응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f]와 가까운 소리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f]와 비슷한 국어의 소리로는 양순 파열음인 ‘ㅍ/프’와 마찰음인 ‘후’가 있습니다. [f] 음의 성질을 보면 소리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찰음이며, 소리가 나는 위치로는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국어의 ‘ㅍ’은 두입술 사이의 소리로서 [f]의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ㅍ’은 파열음이기 때문에 마찰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는 [f]와 같은 마찰음이며 소리 나는 위치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모두 다른 ‘ㅍ’보다는 조음 방법만은 같은 ‘후’가 [f]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를 ‘ㅍ’에 대응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후’가 [f]에 가깝다 하여 ‘피겨 스케이팅, 픽션, 필름, 필터’ 등을 ‘휘겨 스케이팅, 획션, 휠름,

휠터'라고 한다면 France, free kick, fly ball, flute 등과 같이 [f] 다음에 모음이 오지 않고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에도 '후랑스, 후리 킥, 홀라이 볼, 플루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scarf, staff와 같이 어말에 [f]가 오는 단어 역시 '스카후, 스태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f]가 자음 앞과 어말에 오는 경우는 '후'가 어색하고 '프'가 낫다 하여 '프랑스, 프리 킥, 플라이 볼, 플루트, 스카프, 스태프'와 같이 쓰는 것은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2항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모음 앞일 때에는 '후'로, 다른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프'로 적는다고 하여 [f]를 모음 앞에 올 때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로 구분하여 규칙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음 앞의 경우에도 [f]를 다 '후'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ofa, fanfare, fencing, fall(레슬링 용어) 등을 '소화, 황화르, 쉐싱, 철' 등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f]를 '후'로 하여 좀 더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고자 하여도 [f]를 '후'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f]를 '후'로 규칙화하는 데는 너무 많은 예외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f]를 '프/프'로 옮김으로써만이 [f]에 관한 외래어 표기가 단순화됩니다.

혹자는 영어의 pile, file은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단어인데 [p]나 [f] 모두 '프'로 함으로써 '파일, 파일'로 동음 이의어가 되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구별되던 말이 다른 언어에 외래어로 들어갔을 때 동음 이의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일 [f]를 '후'라고 하더라도 동음 이의어가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fight, white에서 온 말이 모두 '화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일(pile), 파일(file)의 구별은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중)

'가나다 전화'는 (02) 771-9909입니다.